



소동리공소(성환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3년

주님 봉헌 축일(축성 생활의 날) | 2025년 2월 2일(다해)

제1독서 말라 3,1-4

제2독서 히브 2,14-18

화답송

-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입니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입니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입니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음 루카 2,22-40

영성체송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신학교 지원반 모임
2월 9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명례방



예비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된 봉헌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정윤식 고르벨리오
진잠 주임

오늘 우리는 주님 봉헌 축일을 지내며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한 사건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되어야 한다.”는 탈출기의 말씀대로 봉헌한 것이지만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봉헌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 봉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찌보면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봉헌된 삶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도 자신을 봉헌한 것이며, 공생할을 통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삶을 시작하신 것도 봉헌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신 것과 죄인들과 함께 지내신 모습도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봉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것도 봉헌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봉헌의 의미는 우리가 드리는 미사에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매 미사에는 성찬의 전례를 앞두고 예물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일차적인 의미는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제병과 포도주의 봉헌이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난한 이들과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 주일에는 예물 봉헌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봉헌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봉헌은 예물을 드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의미로 제대 앞으로 나와서 개별적인 봉헌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는 행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의 또 다른 의미는 하느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에서 축성됨, 성별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 속에서 주님 봉헌 축일에 축성 생활을 하는 분들을 기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자신의 봉헌을 통해 복음이 지향하는 가난과 순명과 정결의 덕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수도자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봉헌하면서 우리의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봉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봉헌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해 줍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을 보내면서 참된 자기 봉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1107)

유판식 토마스



주한 교황사절 대리가 포교성성에 보낸 1954년 6월 자 보고서

한국 전쟁 중에 주한 교황사절 번 주교의 실종으로 인해, 주일 교황사절 막스 데 푸르스텐베르크 대주교가 임시로 주한 교황사절의 일도 맡았다. 교황청은 한국 전쟁 이후 번 주교가 중앙강진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춘천지목구장 토마스 퀴란 몬시뇰을 1953년 11월 11일자로 주한 교황사절 대리 임명하였다. 퀴란 몬시뇰은 1954년 6월경에 “대전의 독립 선교지에 대한 관찰(Observations on Independent Mission of Tae Jon)”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전쟁 이후 대전의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를 교황청에 전송하였다. 이 문서가 전쟁 이후의 대전에 대해서 다루는 첫 번째 공식 문서로 보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고로 내용 안 괄호는 읽기의 편리성을 위해 임의로 넣었다.):

“예하, 지극히 존경하올 (라리보) 주교와 그의 사제들과 수녀들은 이 (대전)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예하의 다른 계획을 위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일본 가옥이었던 중앙 거주지는 온전하지만 새로운 것이 필요하며 계획 중입니다. 교회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새로운 임시 건물이 지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리보) 주교는 새롭고 견고한 건물을 짓고 현재의 건물을 일종의 학교로 전환하기를 희망합니다.

캐나다 프란치스칸 신부들은 도시(대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수도원과 성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권이 승인되자마자 그들은 일본에서 신부를 보내 조사하고, 가능하면 개조하고 점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칸 신부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한다면, 라리보 주교는 그들의 수도원과 성당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개조할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전적인 손해가 될 것이므로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파리외방전교회 생제 신부는 자신의 지역에 매우 번성하는 선교지(논산)와 학교를 갖고 있으며 그곳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행복한 사건은 파리에서 네 명의 젊은 외방전교회 선교사가 도착한 일이었습니다.”

● 권영명 안드레아 신부 솔미 교구역사관 관장



인류복음화성 역사문서고, Nuova Seria,
vol. 1930(1954), rubr. 36-3, prot. 2640/54, f. 304r.



공동체로 스며드는 생태 사도들

환경부 앞 거리미사를 마무리하며 - 신소영 레지나(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2020년 10월 31일 제주제2공항반대 거리미사를 시작으로 하여 2024년 12월 27일 새만금신공항 철회축구 거리미사까지 5년 동안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거리미사를 봉헌하였다. 우리의 연대와 바람이 기도로 연결되어 어느새 환경부 앞은 성지가 되고 여러 도시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손도 발도 심지어 성혈도 얼 만큼 매서운 추위 속에서, 날카롭게 내리쬐는 어지러운 태양 아래서, 강한 빗줄기에 온몸이 젖어버린 폭우 속에서의 우리 기도가 저 청사 안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가닿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들이 부디 용기를 내어 자본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랐다.

환경부 앞은 때로는 성산 일출봉이, 때로는 수라갯벌이 되었다. 제주도의 매가 날아왔고 수라갯벌의 흰발농게가 찾아왔다.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는 생태파괴로 고통받는 작은 생명들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 “두려움과 낙담으로 얼룩진 세계에서 기쁘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희년을 선포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26. 사제의 미사 중 “팔 벌림”의 행위에 대해서

미사 중 사제의 “팔 벌림”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신자들이 따라 해도 되나요?

이어서 사제는 팔을 벌리며 교우들에게 인사한다.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를 시작하며, 주례 사제는 성호경을 긋고, 다음의 미사 예규를 따릅니다. “**사제는 팔을 벌리며 교우들에게 인사한다.**” 여기서 유심히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은 사제가 “팔을 벌려” 인사한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미사 중 사제는 팔을 벌려 인사하거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사제의 팔을 벌리는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사제의 팔 벌림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장엄기도의 자세입니다. 사제의 이러한 팔 벌림의 기도 자세는 하느님께 향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세(탈출 17,9-14; 시편 134,2; 이사 1,15)입니다. 곧, 이 기도 자세는 주님께로 향하려는 신앙의 표시이자, 애덕의 표시이고, 하느님 아버지와의 일치를 드러냅니다. 미사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이해한다면, 제사장이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의식하게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 중 사제들이 팔을 벌리는 모습을 본다면,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사제는 팔을 벌리며 말한다.

-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제는 손을 올리며 말한다.

- † 마음을 드높이.
- ◎ 주님께 올립니다.

사제는 팔을 벌리고 계속한다.

-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사제는 팔을 벌리고 감사송을 계속한다.

감사송에서 드러나는 이 인사에서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올려드리며,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아버지께 봉헌하는 것이 우리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따라서 사제의 팔 벌림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더욱 우리들이 하느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야 합니다. 가끔, 주님의 기도를 봉헌할 때 신자분들 중에도 팔을 벌려 기도를 바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례 예규에 의하면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제가 공동체를 대표로 하여 팔을 벌려 기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세를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을 올리고, 아버지께 감사와 기도를 올리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궁금한 질문은 tjubo@djca.kr 메일 발송해 주세요!

●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세종도원 주임

대전성모병원,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15년 연속 A등급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DAEJEON ST. MARY'S HOSPITAL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15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시설, 장비, 인력 등 필수영역을 비롯 안전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8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은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환자분류의 신뢰수준 △전담 의사·전문·간호사 등 전담의료 인력의 적정성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 해당 환자의 재실시간 △최종치료 제공률 등의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대전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위를 차지했다.

강전용 병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구알림

생태환경위원회 가톨릭기후행동 워크숍

- 때 : 2.22(토) 10:00~15:40
- 곳 : 천안성정동성당 1층 하상쉼터
- 내용 : 참미받으소서 10년을 돌아보며 활동 가치 공유, 본당 사례발표(탄소중립인증준비, 21%파티, 시민발전소)
- 대상 : 누구나
- 참가비 : 1인 1만원(점심식대)
- 접수 : 2.10(월)까지
- 접수-문의 : 010-3452-9702(문자접수) 생태환경위원회



전담사목

아자리아 초대석 with 추준호 예레미야

- 강사 : 추준호 예레미야
- 때/곳 : 2.18(화) 20:00, 새얼센터
- 문의 : 카톡플친[아자리아], (042)824-6773

제76차 교구 성령묵상회

- 때/곳 : 2.22(토)~23(주일), 새얼센터
- 접수 : 2.18(화)까지 / 참가비 : 10만원
- 선착순 60명(숙박 선착순 40명 : 12만원)
- 방문 및 팩스, e-mail접수(tjcrs@hanmail.net)
- 계좌 : 농협 351-1272-6090-53 (천주교대전교구성령쇄신봉사회)
- 홈페이지 www.crs.or.kr 참조
- 문의 : 교구성령쇄신봉사회 (042)824-6771



본 당

천안아산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

- 대상 : 천안아산 지역의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신자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문의 : 010-4417-1136 (지휘자)
- 목요일반
 - 예비반 : 초등1,2학년 / 연습 15:00~17:00
 - 정규반 : 초3~중2(중3까지 활동) 연습 17:00~19:00
- 고학년반 : 중2~고2 / 연습 19:00~21:00
- 금요일반
 - 예비반 : 초등1,2학년 / 연습 15:00~17:00
 - 정규반 : 초등3~중3까지 활동 연습 18:00~20:00

대전해수욕장성당 & 연수원 채용 공고

- 인원 : 관리자 1명 (65세 이하 지원 가능)
- 업무 : 연수원 객실 청소 및 시설 정비
- 제출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 접수 :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 제출
- 문의 : (041)934-7758 팩스 (041)394-7736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대전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 부서 : 키오스크 및 진료과 안내, 입원실 환우 말벗, 공급실 물품 제작
- 자격 : 만25세~65세 가톨릭 신자 (1년 이상 지속 활동 가능하신 분) 말벗 봉사자는 CPE교육 이수자에 한함
- 활동시간 : 주 1회 이상
오전 8:00~10:00, 9:30~11:30 / 오후 1:30~3:30 중 선택
- VMS 봉사활동 등록, 진료비 및 입원비 감면 혜택
- 모집 : 2.23(주일)까지
- 방문 접수 후 면접, 신규 교육(2.26/27) 후 봉사활동 가능
- 문의 : 병원 상기관 5층 자원봉사실 (042)220-9417

예비자와 세 영세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앙심화과정

- 때 : 3.16(주일), 4.6(주일)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피정비 : 대전교구 2만원
- 문의 : 010-8848-5690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천주교 대전교구 합창단 단원모집

- 연습 : 매주 월 19:30, 원신흥동성당
- 문의 : 010-9656-2295 단장 : 서옥경 가타리나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대전교구 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대전반 : 매주 수요일 저녁 19:00~21:00
- 세종반 : 매주 목요일 저녁 19:00~21:00
- 예비초3학년부부터~중3까지
- 문의 : 010-7921-3610

원죄 없으신 성모기사회 미사

- 때 : 매월 둘째주 토 09:20 칠락묵주기도 10:30 미사
- 곳 : 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6408-6562

대전교구 음악선교단 작은평화 단원모집

- 대상 : 여성보컬(알토), 남성보컬,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 자격 : 음악과 주님을 사랑하는 2~30대 천주교 신자
- 소정의 오디션 후 선발
- 문의 : 010-8922-5469, 010-2865-9273

가톨릭 다도회 신입 회원 모집

- 봄 학기 : 3.4~6.10 / 여성, 남성(선비반)
- 대전, 세종 지역
 - 주간(월, 화 오전 10:00) 시간, 요일 변동 가능
 - 야간(월 오후 18:00)
- 문의 : 010-5760-3696, 010-8427-5739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 대상 :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 내용 :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우편)
- 접수 : 2.14(금)까지
- 문의 : (02)745-8339 (홈페이지 참조)

예수회센터 복학기 동영상 강좌 / 3월 개강

- 마태오의 예수 이야기 : 토라, 제국, 하느님의 나라 / 박상훈 신부
- 성경대학 :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3 / 송봉모 신부
- 꿈-하느님의 귀한 선물! / 홍기령 교수
- 단테<신곡>지옥편 : 배신과 우정 / 김산춘 신부
- 구약성경 아가데미 : 창세기 해설 / 주원준 박사
-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 번째 길 / 최지원 수녀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신청 : (02) 3276-7733, <https://center.jesuit.kr/>

바오로팔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 과정 :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 우편 또는 이러닝(동영상) 성경공부
- 원서 : <https://uus.pauline.or.kr/> 2.28, 마감
- 문의 : (02)944-0819~23, 010-5584-8945

54기 내면아이치유워크샵

-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돌보는 마음여행
- 대상 : 관계소통 회복, 내면의 성장을 원하시는 분
- 때 : 2.7(금) 10:30~9(주일) 18:00
- 신청 : (042)862-9780, 010-5392-6353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김벨 피부과병원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T. (042)471-7575, 1588-5678 정부청사역 2번 출구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여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7인 진료 T. (042)220-5500 대흥동성당 맞은편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상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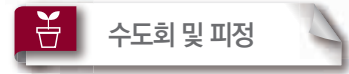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캘리그라피, 이콘
- 전례초조각(초·중·고급) 성가, 영성심리상담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2025년 살레시오 여름신양학교

- 대상 : 초등부(초3~6), 중고등부(중1~고3)
- 신청일 : 2.28(금)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고

가평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요양보호사(주간·야간 선택가능)
- 조리원(아침당번 안함)
- 기숙사 1인실 제공
- 문의 : (031)589-0102



초정성령회관 성모성심 세미나

- 때 : 2.7(금)~4.4(금)
- 매주(금) 19:30~(토) 12:00
- 강사 : 두현자 회장, 임문철 신부 외
-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 셔틀버스 :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18:00 출발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8:20 출발
청주교구 교구청 18:40 출발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센터

- 심리 상담(청소년, 성인-개인, 부부, 가족 문제)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내적치유나 영적돌봄에 관심있는 분

- 2025년 봄학기 임상사목교육(C.P.E.)프로그램
- 때 : 2.15~5.20 - 평일반 또는 토요일반
- 곳 : 섭리C.P.E센터 / 8명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8863-3637 전주섭리수녀회

2박3일 침묵피정

- 때 : 2.21~23 / 속리산과 함께 3.14~16
- 곳 : 보은 예수수도회 영성의 집
- 문의 : 010-9608-0208(1:1개인지도)

우리성서모임 32기 신입생 모집

- 내용 : 우리성서모임 (창립 32주년) 신입생 모집
정규반(목) / 단기반(화,수,목 주 1회 가능한 요일)
- 시간 : 오전반 09:30~11:30 / 저녁반 19:00~21:00
- 곳 : 대전 중구 대흥로 62 예수수도회 교육센터
- 개강 : 3월 첫째 주간 / 입학미사 : 2.16(주일)
- 문의 : 예수수도회 우리성서모임 010-2985-9020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 (zoom)

- 때 : 3~11월 (주일) 16:00~18:00 (12만원 x 3회)
- 지도 :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 한라산눈꽃산행 : 2.21~23, 2.25~27
- 자연순례 : 3.1~3, 3.8~10, 3.18~20, 3.29~31
- 추자도포함 : 3.13~16, 3.23~26, 4.5~8, 4.29~5.2
- 문의 :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 1박 2일 : 2.14(금)~15(토), 3.8(토)~9(주일)
- 3박 4일 : 2.17(월)~21(금)(4박5일), 2.26(수)~3.1(토)
- 8박 9일 : 2.3(월)~11(화)(신학생, 일반), 3.13(목)~21(금)
- 40일 : 4.21(월)~5.30(금)
- 곳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 추자도포함성지순례 : 3.1~4, 3.9~12
4.12~15, 4.27~30, 5.4~7, 5.26~29
- 생태순례 : 2.22~24(한라산), 3.17~19, 3.22~24
3.28~30, 4.2~4(추자도), 4.7~9, 4.22~24
- 문의·접수 : (02)773-1463, (064)756-6009

마음건강 관리 하루피정

- 곳 : 작은형제회 성거산 수도원 피정의 집
- 강사 : 김미화(가톨릭대학교 정신간호학 박사)
- 때 : 2.22 / 매월 마지막 토
- 최소인원 : 10명 / 참가비 : 5만원
- 문의 : 010-2653-1639(석일웅 수사)
- 일정 : 5시간(오후 1시 시작)
- 1회기 (2시간) : 컬러 성향별 회복력 코칭
- 2회기 (2시간) : 마음건강 관리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 성경완독 : 2.14(금)~22(토), 3.14(금)~22(토)
- 문의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때 : 수시
- 곳 : 서울 성북동 본원
- 대상 : 선교사제를 지향하는 청소년, 청년
- 문의 : 010-8715-2846

가정사목부 프로그램 안내

- 신청 : 가정사목부 홈페이지 <http://familia.djcatholic.or.kr> • 문의 : (042)256-5487~8

프로그램	때·곳	대상
태아와 산모축복(영유아) 미사	2.12(수) 10:00, 세종성요한바오로2세성당 2.13(목) 10:00, 전민동성당 2.19(수) 10:00, 모산성당 2.21(금) 10:00, 천안용곡동성당	임산부, 영유아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2.13(목) 19:30, 원신흥동성당 2.20(목) 10:00, 천안신부동성당	모든 신자
혼인교리	2.15(토), 3.1(토) 비대면	혼인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제58차 아버지학교	3.15(토)~16(주일) 1박2일, 씨튼영성의 집	모든 아버지(첫영성체 및 초중고 자녀를 둔 아버지) 수강료 : 14만원
제34차 어머니학교	3.22(토)~23(주일) 1박2일, 씨튼영성의 집	모든 어머니(첫영성체 및 초중고 자녀를 둔 어머니) 수강료 : 14만원



한끼100원나눔운동
2025년 사랑의 온도현황

2.6°C

총 모금 26,767,025원

[1.12~15 모금액] 9,239,050원
본당 630,450원 / 개인·기관·행사 8,608,600원

맑은눈 안과 노안, 백내장, 녹내장, 스마일라식, 라식, 라섹 T.(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살비아) T. 1877-9924, 010-2575-2176
미즈의원난임센터 산부인과 전문의 서영석(다미안) 산부인과 전문의 박상도(펠릭스) 탄방동673번지 T. (042)488-2255	공신한의원 산후질환, 난임, 소아보약, 피부질환, 과민성대장, 비염 최성훈(안드레아) 미즈여성병원 3층 T. (042)488-9595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4/22 다낭 5일, 4/28 홍콩마카오 4일 4/1, 4/15, 5/13, 5/27 제주도성지순례(추자도) 3/11 전주광주 3일, 5/12 춘천원주 4일 정상훈 미카엘 T. 010-8650-9690



천주교 대전교구
한끼 100원
나눔운동본부

2025년 01호

2025년 01월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소식지 No.49

대전 문창동 효심정



2024 두근두근, 대림천사 기부금 전달

본부는 매년 대림 시기에 기부와 실천을 통하여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는 '두근두근, 대림천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4년 두근두근, 대림천사'는 2023년에 이어 무료급식소(대전 문창동 효심정, 대전성모의집, 천안성모의집)를 이용하시는 독거 어르신, 노숙인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하여 모금하였습니다.

본부장 권지훈 베드로 신부는 대림 시기에 모인 정성과 본부 지원금을 더하여 지난 12월 27일(금) 각 기관당 3,00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연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나눔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 두근두근, 대림천사 참여자 명단(총 48명)

강희영, 김교순, 김기창, 김록연, 김병관, 김익현, 김흥관, 김흥원, 박노숙, 박미영, 박상수, 박소희, 박용희, 박지성, 박지현, 박진우, 배연표, 백성진, 서영아, 서정숙, 서정현, 송춘성당(익명), 신광진, 신승림, 신현웅, 안순안, 양은숙, 이경숙, 이봉희, 이순임, 이슬비, 이영희, 이한슬, 익명, 인영신, 임지우, 임지환, 장경숙, 정금자, 정기호, 정재길, 최순이, 최영남, 최혜주, 한상림, 한승자, 홍사랑, 황규진

‘한끼100원나눔운동’을 시작했던 2008년, 저는 군중 신부로 사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군중 사목을 마치고 교구에 돌아와 교구 본당에서 사목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긴 알았어도 도대체 어떻게 운동에 참여하고, 참여한 모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부끄럽게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당 사목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교구장 주교님께서 대뜸 “여기는 한끼 100원나눔운동 참여도가 적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간 당황했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본당 신부는 신자들에게 운동의 의미를 전하고 동참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전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본당 사목 5년째 해를 마무리해 가는 어느 날, 교구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에서 사목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인사명령을 받고, 저는 마음으로 “내가 진작에 본당에서 이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으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되지도 않는 아쉬움을 가졌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부임을 하였습니다. 부임을 하자마자 주변 동료 신부님 몇 분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100원짜리 뜯어(?)가는 신부’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내가 뜯긴 뭘 뜯는다고 그래?”라며 맞받아쳤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시작된 이곳에서의 사목은 제가 서서히 운동의 의미를 찾아가며, 운동으로 모여진 교구민들의 정성스러운 모금액은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격월로 보내진 본부 소식지를 보신 모든 분이 아시겠지만,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에서는 소중한 모금액으로 국제, 국내, 대북 관련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을 합하면 일주 1천에서 2천 명 사이가 됩니다. 대상자들은 주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 편부모 아이들,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 저

개발 국가에 속한 어른과 아이들, 미등록 외국인들...

한끼 100원으로 모인 자그마한 사랑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적 사랑을 이 운동을 통해 이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교구 내의 운동임을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면, 그에 따른 감사함이 들려옵니다. 이 감사함을 운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그때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죄송스럽게도 격월로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많은 교구민이 이 운동에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운동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어떤 동료 신부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끼100원나눔운동이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끼에 100원이나?”고..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라도 전 해주시면 저희 본부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절실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원짜리 뜯어가는 신부

권지훈베드로



한끼100원나눔운동
카드오류 재발주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한끼100원나눔운동은 매끼 식사를 할 때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기억하며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한끼100원나눔운동
참여신청



2025년, 더 많은 사랑을 나눠요

본부는 '한끼100원나눔운동'으로 모인 정성으로 가까운 주변 이웃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삶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해외의 어려운 형제·자매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내용
몽티모르	아일레우 리퀴도에	• 어린이 도서관 / 이동도서관 운영 • 아동보호 및 보충학습 지원을 위한 방과 후 교실과 취업준비를 위한 컴퓨터 교실(기초)운영
몽골 울란바타르	항울성모승천성당	• 아동보호, 보충학습 지원을 위한 어린이 공부방 2개소 운영 • 쓰레기장 노동자 무료급식, 사위시설 운영 • 어르신 돌봄교실
파키스탄	카리타스 카라치	•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직업교육, 기술 숙련 교육 제공
캄보디아 프놈펜	프락 타게오 마을 코포 베트남인 빈민촌	• 아동교육 활동 지원(아동 급식(아침 식사), 등하교 인력거 대여, 학용품 지원) • 마을 주민 식량 지원(식재료 및 쌀 지원)
필리핀 파사이	모사의 장학사업	• 아동교육 장려활동(장학금 지급, 학용품 지원, 방과후 교육 참여 지원)
필리핀 퀘존	성녀 마리유프라시아 통합개발재단(SMEIDFI)	• 학대·착취 생존자들의 회복과 통합적 발전을 위한 돌봄 개입(생필품 키트 제공), 심리 상담, 교육 활동
인도 타밀나두	사다암 팔라암	• 아동·청소년 공부방, 아동보호와 글쓰기/컴퓨터/영어 등 교육을 위한 방과 후 교실 운영
몽골 울란바타르	지식에르템 초·중·고등학교	• 결식아동 급식/도시락 지원

국내지원



2025년 국내배분사업을 소개합니다 Part 1.

본부는 '한끼100원나눔운동'으로 모아진 성금을 통해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당(사회복지분과) 및 본당사회복지분과교구협의회 협력사업

아동가정 LED 전등 교체비 지원 "밝은 미소"

LED 전등 교체를 통해 아동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생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본당 사회복지분과와 협력하여 LED 전등 교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교구 내 145개 본당 사회복지분과에서 필요 가정 발굴 및 신청, 교체 작업

지원금액

가구당 300,000원

본당 '밀반찬 나눔활동', '사랑의 장바구니' 활동 지원

지역 내 어려운 형편으로 결식위험에 놓인 가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결식 예방을 위한 '밀반찬 나눔활동' 및 '사랑의 장바구니'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지역 내 결식위험 가정을 발굴하여 본당에서 밀반찬을 조리하여 지원(밀반찬 나눔활동)하거나, 음식 조리가 가능한 가정에 대해 개별 욕구를 반영한 식재료, 어르신 생신 케이크 및 생필품을 구입(사랑의 장바구니)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며 말벗 활동을 합니다.

지원본당 및 금액

- ① 밀반찬 나눔활동 : 교구 내 20개 본당 사회복지분과
본당별 3,000,000원
- ② 사랑의 장바구니 : 교구 내 14개 본당 사회복지분과
본당별 3,500,000원(예정)

신청방법

'본당사회복지분과교구협의회' 추천 본당

지역사회 아동 결식 예방 프로그램 지원

예산군/홍성군 지자체, 지역사회 상점 및 본당과 협력하여 지역 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영양식을 지원하며, 라포형성을 통해 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협력과 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

참여인원

예산군, 홍성군 내 결식위험 아동·청소년
(홍성성당, 예산지역 8개 본당)

지원금액

예산군 5,000,000원
홍성군 5,500,000원



본부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매월 네 번째 화요일 저녁,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평화기원 월례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19:30 봉산동성당(주임 김진 신부), 12월 17일 19:30 내동성당(주임 이원화 신부)에서 봉헌된 '평화기원 월례미사'에 본당 공동체 및 위원회, 교구 신자분들이 함께 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평화기원 월례미사를 주례한 강용 임마누엘 신부는 강론을 통해 공감과 연대의 마음으로 북녘의 우리 민족이 우리

에게 소중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였습니다.

12월 평화기원 월례미사를 주례한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는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며 동시에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념전쟁과 진영논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평화기원 월례미사'에 함께해 주신 본당 공동체와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기도 운동'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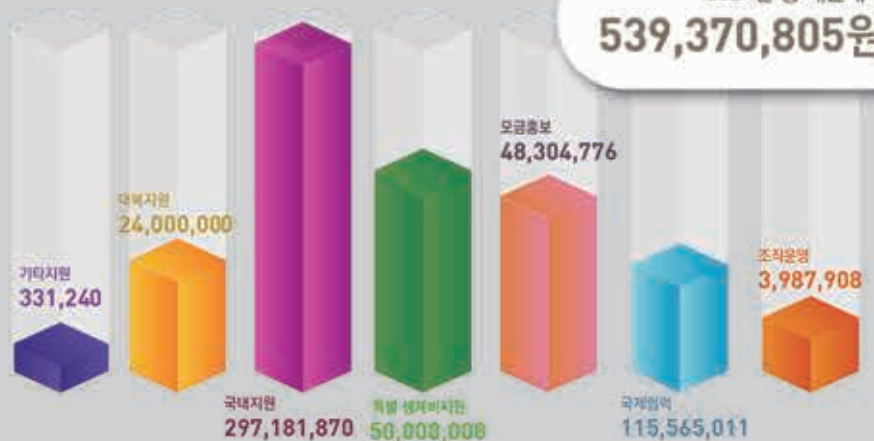
후원자를 찾습니다!!

아래 이름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은 본부로 연락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련)

동업 손양기, 김오곤, 하기순레단, 상미카타리나, 정성지, 한끼나눔후원금, 홍하나, 한끼나눔, 김성진, 고진석다니엘, 오소영

하나 김민영(파리), 김도희 **국민** 데레사

우리 최태용



2024년 모금총액

850,414,831원

본당후원	기관/단체후원	개인후원	특별지항/행사수입	기타후원금
472,181,137	60,942,220	306,457,660	5,833,814	5,000,000

※후원본당, 단체 및 개인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 중에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은 본부로 꼭!!! 연락 바랍니다.

Ch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검색

‘빨리 감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와닿는 순간입니다. 제 앞에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고, 이제 막 관심 있었던 영화 한 편을 보려는 순간입니다.

그저 영화 한 편 감상하려는데 웬 ‘유혹’에 대한 비장한 기도까지 필요할까 싶지만, 제 나름대로는 심각합니다. 영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이 아니라, 집에서 컴퓨터로 영화를 감상하다 보니, 단지 감상 매체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감상의 방식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영화 자막도 마음대로 고르고, 소리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하고, 특정한 장면을 반복해서 되풀이해 보거나, 지루하다 싶으면 내 마음대로 몇 장면을 건너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감기’ 기능만큼은 끝까지 사용하기 꺼려졌습니다. 아무리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이지만, 영화를 빠른 배속으로 본다는 것만큼은 스스로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 일은 많고 영화는 꼭 보고 싶은 욕심에 1.5배속으로 영화를 보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배우들의 움직임과 대사 모두 어색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마다 자꾸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게 되면서, 이젠 심지어 2배속으로 봐도 어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상 속도보다 빠르게 볼 수 있으니 시간 절약도 되고, 더 많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는 것 같아 생각보다 ‘빨리 감기’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빨리 감기로 보다 보니, 영화의 줄거리만 기억에 남을 뿐, 영화의 세세한 디테일이 사라지게

되니 과일을 향기만 맡고 먹어보지 못한 그런 공허한 느낌만 커집니다.

그러면 다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영화를 고릅니다. 볼 영화는 얼마든지 많기에, 빨리 선택하고 빨리 보고 나서 또 다른 영화를 빨리 보면 된다는 흐름 속에 제 자신을 맡깁니다.

문제는 영화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동영상 콘텐츠를 정상속도가 아닌 ‘빨리 감기’로 보려는 욕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봐도 되는 상황 일 때에도 욕망은 안 바뀝니다.

편하고자 하는 욕망만큼 강력한 유혹은 없고, 또 그 욕망이 습관이 되면 빠져 나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즈음입니다. 이 습관이 실제 생활에까지 옮겨갈까봐 두려워집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생각보다 복잡하게 이야기가 얹혀 있는 인생이라는 긴 장편 영화마저 빨리 감기로 대충 보고 지나가고자 하는 욕망이 자꾸만 저를 재촉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조금만 길어지기라도 하면, 읽고자 하는 책이 조금만 두꺼우면, 어떤 일이 조금만 복잡해지려 하면, 건성건성 빨리빨리 지나치려는 유혹이 강하게 고개를 듭니다.

이러다 기도마저 ‘빨리 감기’의 방식으로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까 봐 걱정입니다. 주님, 결코 ‘빨리 감기’ 할 수 없는 당신의 기도로 이 성급함과 가벼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 건양대교수



초임 본당 주임사제 파견예절



초임 본당 주임사제 파견예절이 1월 20일(월) 교구청에서 교구장 주교와 사무처장, 초임 본당 사목으로 파견되는 8명의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1월 14일(화) 사제 인사발령에 따라 주임으로 파견되는

조성광(서산동문동 주임), 김동진(조치원 주임), 김준영(세종성베드로 주임), 윤진우(세종도원 주임), 김철희(기지사 주임), 신성수(공세리 주임), 오순욱(대천해수욕장 주임), 이정욱(천안구룡동 주임) 신부가 교구장 주교 앞에서 신앙고백과 충성서약을 했다.

반석동본당 세례식



반석동본당(주임 김찬영 신부)은 지난 12월 25일(수) 주님 성탄 대축일에 새 영세자 19명이 세례식을 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2025년 축성 생활의 날 담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축성 생활자 여러분!

2025년은 교황님이 선포하신 희년이며 세계 청년대회가 2년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해이고 주교회의 인준으로 한국교회 축성 생활의 해를 지내는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축성 생활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희년, 축성 생활의 해, 축성 생활의 날, 더 나아가 세계 청년 대회를 꿰뚫는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입니다.

1996년 주님 봉헌 축일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축성 생활의 날을 제정하시고 이날에 축성 생활로 많은 젊은이들이 불림을 받기를 기도하며 축성 생활자들이 자신이 받은 성소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날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축성 생활은 무엇이며 축성 생활자들은 누구입니까?

축성 생활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명하시며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으며 자신을 봉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겠다고 나선 이들이 축성 생활자입니다. 축성 생활자의 범주를 좁은 의미에서 보면 수도자를 들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직자와 동정녀, 은수자, 봉헌자, 재속회원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추종하고 본받는다라는 것은 타자로서가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이며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예수님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사랑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축성 생활자들은 바로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 무슨 임무를 맡았든 간에 모든 일에 앞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예수님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에게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도 하고 애덕 사업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빨리 힘이 빠지고 지쳐버릴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승용차, 크고 작은 트럭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 수많은 종류의 차량이 있지만 이 차량들이 움직이기 위해선 반드시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를 주유소나 충전소에 가서 공급받고 나서야 차량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빈약한 사랑의 빈 탱크에 사랑을 가득 채워줄 주유소이며 연료 탱크입니다.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축성 생활의 날, 축성 생활의 해, 세계 청년대회, 희년을 맞아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느님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는 좋은 도구와 기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맺는 그 친밀한 기쁨을 젊은이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2025년 2월 2일 축성 생활의 날에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 협의회 회장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